

2019. 4. 28.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요한 20, 28)

부활 교구가톨릭사건회

제1독서 사도 5, 12-16

제2독서 묵시 1, 9-11 나. 12-13. 17-19

복음 요한 20, 19-31

화답송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 님 은 좋 으 신 분 찬 송 하 여 라 주 님 의 자 애 는 영 원 하 시 다

복음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영성체송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사랑을 멈추지 말고  
다른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동료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의 「진정한 나로 살아갈 용기」라는 책은 친구들 사이에서 나 혼자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을 여러 예시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종종 소외감이 느껴질 때가 있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통보받는다거나, 나만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늘어가고 있고 어쩐지 대화에 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서운한 감정이 앞서고 친구들에게 배신감도 들지만 사람들은 ‘우리’라고 생각했던 집단을 쉽게 떠나지 못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한다. 소속감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데, 이 소속감을 위해서 사람들은 때때로 신념과는 다른 말을 내뱉고, 조금 가식적이더라도 일원으로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한다.”

토마스 사도가 동료 사도들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토마스 사도가 느꼈을 서운함과 야속함에 잠시 머물러 보고 싶었습니다. 나에게도 동료로부터 소외감을 느꼈던 적이 많은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토마스 사도는 다른 동료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에게 없는 이야기를 하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슬픔과 외로움이 싫어서 평소보다 더 강한 어조로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이 말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요한 20,25).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너희들이 참으로 원망스럽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셨다면 왜 그때 나를 찾아주지 않았는가! 왜 너희들만 느끼

고 머무르는가. 지금까지 동고동락한 나는 너희에게 무엇인가?”

사실 토마스 사도를 불신앙의 대명사로 바라보기에는 우리 모두 열등한 신앙인임을 직시하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아닙니까! 토마스 사도의 신앙심을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진정한 사랑을 품고서 한 번 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토마스에게 찾아와 주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야말로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며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분 곧 “토마스 사도의 하느님이시며 우리 모두의 살아계신 하느님”이심을 보게 된 순간이니까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하는 여러 내용들로 내용들로 등장합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대상을 향한 판단보다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고 계시는 그 사랑의 현존을 먼저 바라보고 절절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동료에게 주님의 현존으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김제인 사도요한 신부  
금암 본당



## 부활을 선포하는 노래 ‘부활 찬송-엑솔뻬트 Exultet’

오늘은 바로크 시대에서 잠시 벗어나서, 지난 부활성야 때에 부제님 혹은 신부님이 불렀던 “부활 찬송-엑솔뻬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가시지 않은 부활 성야의 감동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싶어합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의 장엄한 시작’을 알리는 ‘빛의 예식’이 시작되면, 부제(사제)가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찬미하는 노래, ‘엑솔뻬트’를 부릅니다.

“엑솔뻬트 암 안젤리카 두르바 첼로룸 *Exsultet iam angelica turba caelorum* (… 웅악하여라 하늘나라 천사를 무리 …)”으로 시작하는 “부활 찬송”에 나오는 라틴어 가사의 첫 단어가 “엑솔뻬트 *Exultet*”입니다. 그래서 흔히 ‘엑솔뻬트’이라고 합니다. 엑솔뻬트는 ‘기뻐하라, 웅악하여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의 정확한 명칭은 “쁘레꼬니움 빠스칼레 *Praeconium Paschale* 즉, “부활 찬송”입니다. ‘쁘레꼬니움’은 찬양, 찬미, 찬송이라는 뜻이며, ‘빠스칼레’는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부활 찬송’이라는 용어가 교회가 사용하는 전례 용어입니다.



‘부활 찬송’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 ‘낭송으로 선포되는 노래’, ‘구원사에 대한 찬미의 노래’입니다. ‘부활 찬송’은 암브로시오 성인(339-397) 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 멜로디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부활 찬송’입니다.

부활 성야 미사 때에 구약의 7개 독서와 신약의 2개 즉, 서간과 복음이 봉독됩니다. 부활 찬송에는 이 9개의 봉독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 찬송은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기쁨의 노래이며, 부활 예식의 정점입니다. 가사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sup>1)</sup>

1. “웅악하여라 하늘 나라 천사들 무리 … 이 파스카 초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 이 파스카 초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까지는 주님의 부활을 장엄하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음악적으로 장엄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장식음들이 선율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2.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 화합을 이루며 권세를 누르네.”

이 부분은 하느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음악적으로는 제 1부분보다 선율의 움직임이 훨씬 간단하며 마치 서간경을 낭창하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거룩하신 아버지 이 은총의 밤에 … 거룩한 교회는 별들이 만든 이 초를 …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 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별들이 만든 밀랍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를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부활 전례에서 초를 밝히는 것은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죄악의 어둠을 물리치고 구원으로 인도함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 역시 서간경 낭창 구조처럼 반복음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부활 찬송”은 부활의 신비를 알리는 가장 장엄한 찬미의 노래입니다.

추천음악 :

2010년 4월 3일 로마 베드로 대성당 베네딕토16세 교황 집전 부활성야 미사



1) 부활 찬송의 유래와 전례음악적 기능 : 이대성 역음 참조

## 노동절 담화(요약)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신명 8,3)

올해로 제129회를 맞이하는 노동절을 기념해서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과,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께서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은 국제 노동 기구(ILO)의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더 큰 축하의 마음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합니다. 노동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 당신께서 하시던 그 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노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다양함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들어 국회, 정부, 그리고 법원에서도 노동을 주제로 한 이야기는 많이 들립니다. 임금이 얼마여야 하는지, 안전 설비와 안전 규정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그리고 고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지 등 이른바 임금, 산업 안전, 고용의 문제가 많이 논의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의 바탕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노동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빵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큰 빵을 만들고 싶은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직 효율성만을 강조할 때 피조물들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노동을 생각하며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신명 8,3)고 하신 하느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먼저 자본가들에게는 빵의 유혹이 더 큰 힘으로 등장합니다. 규정을 조금만 지키지 않으면, 또 규정을 조금만 바꿀 수 있으면 더 큰 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켜 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치인과 관료 또한 같은 유혹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빵은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고 그저 나에게 성가신 일이 생기지 않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노동자에게도 이 빵의 유혹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약한 다른 노동자들의 처지에 눈감고, 오직 나와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려 할 때, 노동자들의 주장 또한 결국 빵의 유

혹에 걸려 넘어간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듯 자신의 위치에 약한 고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규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가치를 선언하고, 약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빵의 한계를 정하는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국제 노동 기구에 가입했으나, 국제 노동 기구가 정한 핵심 협약 8가지 가운데 일부는 아직 비준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편적 노동권 존중에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바로 청소년 노동 문제입니다. 사회 안에서 청소년들이 임금, 고용, 안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늘어나지만 그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약자일 수밖에 없기에 이들의 고통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장 실습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회가 더욱 큰 관심으로 청소년 노동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동절을 맞아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노동계와 재계, 그리고 정부 안에서 노동을 주제로 한 대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시대의 고민에 함께하며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옷깃을 여미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노동자의 주보이신 요셉 성인의 전구로 더욱더 하느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봅시다.

2019년 5월 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배 기 현 주교

## ‘가버나움’ (Capernaum, 2018)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루카 23,28) 영화 <가버나움>은 베이루트 빈민가에 살고 있는 ‘자인’이라는 소년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담고 있다. 태어나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돌볼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인은 자신의 나이도 생일도 모른 채 거리에 나와 돈벌이에 이용된다. 어느 날 월경이 시작된 여동생 사하르가 혈값에 팔려가는 걸 알게 되고 그 실망감에 집을 뛰쳐나갔다가 놀이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난민 출신 라힐과 그녀의 아들 요나스를 만나게 된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베이루트 빈민가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다. 마치 6·25 전쟁 이후의 한국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굶주리는 이들이 넘쳐나고, 아이들이 태어나도 축복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된다. 오랜 내전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에서 사회적인 시스템은 붕괴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한 이들 특히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떠안는다. 아이로서 당연히 바라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 인간으로 자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은 요원하다.

사실 자인이 원하던 삶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봉고차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과 같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평범한 삶을 바라지만 그에게는 이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여동생의 죽음에 화가나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에 들어가게 된 자인이 부모를 고소한 것도 그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삶의 몸부림 같이 보인다.

영화제목인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요활동지인 ‘가파르나움’의 이중적인 의미를 빌려온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지만 그분을 믿지 않기에 멸망에 대한 예고를 들었던 곳인 가파르나움. 자인이 살고 있는 이 도시는 멸망의 그림자가 이미 드리워져 이제 기적이 필요한 곳으로 묘사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기쁜 소식을 전하신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님 시대의 군중처럼 굶주리며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존재한다. 지구에서 생산되는 식량 절반은 제때 소비되지 않고 버려지고, 지구 반대편의 약 30억 명의 인구는 굶주림에 시달린다고 한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간다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이웃사랑’으로 나눔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나와 내가 속한 집단의 풍요로움만 바라며 살고 그러면서 원조나 난민 문제는 강 건너 불구경 같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기쁨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관심과 나눔으로 실천해 가자.





교구장 대주교님 동정

4월 28일 견진, 사목방문(광천동 성당)  
4월 29일 주교님과 함께하는  
-5월 9일 사제 성지순례(로마)



총대리 주교님 동정

4월 28일 견진, 사목방문(사거리 성당)  
4월 29일 파티마의세례사도직  
성모피정강의  
4월 30일 성가롤로병원 강의

사목국

삼호본당 용양공소 승합차 후원

계좌 : 농협 301-0017-1432-91  
재)광주구천주교회(공소사목)  
문의 : 062) 380-2831

본당 노인사목봉사자 하루교육

일시 : 5.18(토) 10:00~17:00  
장소 : 가톨릭평생교육원 103호  
강사 : 김지수 바실리사 자매  
(평생교육원 노인여가활동지도사과정 강사)  
대상 : 본당 노인사목봉사자 및 관심있는 모든분들  
수강료 : 광주시내 2만 원, 광주시외 1만 원  
계좌 : 농협 601135-55-000446 광주구천주교회  
준비물 : 미사준비, 개인컵(필히 지참)  
접수 : 5.12(주일)까지 그룹웨어(가정사목) / Fax 신청  
문의 : 062) 380-2834, Fax 062) 380-2815

제62기 성요셉 아버지학교(화정3동 성당)

기간 : 6.1(토)~29(토) 5주간  
시간 : 매주 토요일 17:00~23:00(저녁식사 제공)  
장소 : 화정3동 성당 / 대상 : 모든 아버지들  
인원 : 정원 36명  
수강료 : 1인당 12만 원  
문의 및 접수 : 화정3동 성당 062) 372-1799,  
010-3617-5824 Fax 062) 374-1799

성소국

교구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 5.11(토) 10:30  
장소 : 가톨릭평생교육원 성당  
대상 : 성소후원회 회원, 예비신학생 부모, 신학생 부모  
문의 : 062) 380-2280~1

제56차 성소주일

일시 : 5.12(부활 제4주일) 접수 09:30~귀가 15:30  
주제 : 주님께서 나와함께 계신다(루카 1,28).  
장소 : 광주가톨릭대학교전남 나주시 남평읍 중남길 12-25  
대상 : 예비신학생, 초등부복사단, 중·고등학생, 청년  
준비물 : 미사준비, 점심식사  
내용 : 미사, 식사, 포스트활동, 어울림한마당 등  
문의 : 062) 380-2280~1

청소년사목국

청년 폐제기도

일시 : 5.1(수) 20:00  
장소 : 광주가톨릭청소년센터 경당  
문의 : 062) 380-2275

부모교육

일시 : 광주 / 개강 5.11(토), 중강 7.20(토),  
각주 토요일 진행(7회)  
여수 / 개강 5.19(주일), 중강 7.14(주일),  
각주 주일 진행(5회)  
장소 : 광주가톨릭청소년센터, 여수 동산동 성당  
대상 :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님 / 보호자  
인원 : 각 지역별 접수순 20명  
마감 : 5.2(목)까지 그룹웨어 접수  
참가비 : 2만 원 / 문의 : 062) 380-2271~2  
문의 : 062) 380-2275

청소년문화카페 꿈 "토탈공예"

일시 : 5.11(토) 14:00  
장소 : 청소년문화카페 꿈(광주교대 옆)  
대상 : 중·고등학생 / 내용 : 플라워조형 만들기  
신청 : 무료, 5.3(금) 접수순 10명  
문의 : 062) 380-2279

3·1절 100주년 기념 5·18 도보순례 및 추모미사

일시 : 5.19(주일) 08:30~18:00  
도보코스 : 종의공원-국립 5·18 민주묘지(총 14.8km)  
추모미사 : 16:30, 국립 5·18 민주묘지 역사기념관  
대상 : 청년, 초등 고학년 이상  
신청 : 5.5(주일)까지 본당별 신청그룹웨어 김현신)

사회 사목국

교정사목 봉사자 월례미사

일시 : 4.30(화) 10:30  
장소 : 임동 주교관(구 교구청) 2층 경당  
문의 : 062) 510-2822

정의 평화위원회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미사

일시 : 5.6(월) 19:00 / 장소 : 남동 성당  
특강 :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강사 : 오수성 센터장(광주트라우마센터)  
문의 : 062) 380-2290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www.kjpbcc.com FM 99.9MHz FM 99.5MHz  
f 페이스북 kjpbcc99.9mhz t 트위터 kjpbcc

오늘의 강론 [월-토 06:50-07:00] (방송 후 홈페이지 '다시듣기' 서비스 이용가능)

4.29(월)~5.1(수) 양희문 신부(동산동 본당) / 5.2(목)~4(토) 강요섭 신부(소록도 본당)  
(선교 프로그램) '항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 국악성이 라디오 배운다' [4.29(월) 14:25-14:50]  
예수그리스도교간수도회 강수근 신부와 한소리합창단원들이 출연해 국악상가에 대해 알려주고 함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29(월)에는 국악상가 '파스카 화생재물'을 배워봅니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 '항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코너에서 악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함께하는 세상, 오늘 - 세상 읽어주는 신부' [5.3(금) 17:25-17:40]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인 박동호 신부가 우리 사회 현안을 공동선의 시각에서 풀어줍니다.

개국 23주년 기념 후원회원 초청 '평화음악제' 초대권 신청 안내

광주가톨릭평화방송에서는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평화음악제'를 개최합니다.  
일시 : 6.3(월) 19:30 / 장소 : 광주5.18기념문화센터 / 초청대상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후원회원  
초대권 신청 : 5.2(목)부터 선착순(1인 1매)접수 (조기매진이 예상되오니 빠른 접수를 바랍니다.)  
접수방법 : 1. 전화접수 : 062) 231-7745, 7709 2. 문자전용 휴대폰접수 : 010-4828-7745  
문자전용 휴대폰접수는 후원회원명(세례명), 본당,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 St. 바오로 여행사 홈페이지 : www.paulustour.com 문의 : 062) 381-9004

이스라엘(9월) 6.13(목)~21(금) / 이태리, 프랑스, 스위스, 독일 수도원 순례(11월) 9.6(일)~16(월)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www.kccei.com

광주가톨릭문화원 가톨릭갤러리 현 책다함이사당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T. 062) 380-2210~5

제17회 파이프로간 정기 연주회

교회음악원에서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력 있는 연주자를 초청하여 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 4.29(월) 19:30 [장소] 임동 주교좌 성당 [연주자] 이윤수 [입장권] 1만 원  
※[20% 할인] 교육원 수강생, 빛고를 홍보를 지참자 / [50% 할인] 교회음악원 수강생, 청소년  
교리신학원 수강생 모집

신학아카데미 / 전례학 [기간] 5.1-6.12(수) 7주 [시간] 14:30~16:30 / 19:00~21:00 [수강료] 5만 원  
성서아카데미 / 시서와지혜서 [기간] 5.2-6.13(목) 7주 [시간] 14:30~16:30 / 19:00~21:00 [수강료] 5만 원

자격과정 모집

웃음지도사 [기간] 4.29(월)~6.24(월) 8주 [시간] 10:00~13:00 [수강료] 12만 원  
레크리에이션지도사 [기간] 4.29(월)~6.24(월) 8주 [시간] 10:00~13:00 [수강료] 12만 원

갤러리 현(玄) 전시 안내

[기간] 4.23(화)~5.17(금) [시간] 9:00~18:00 [주제] Je suis celui qui suis 나는 있는 나다 - "탈출 3,14"  
[장소]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갤러리 현(玄) [작가] 송진영, 박재만, 신주옥

• 인터넷 www.kccei.com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및 온라인 결제 가능 / 문의 : 062) 380-2210~5  
• 교육입금계좌 : 광주은행 170-107-051747 (재)광주구천주교(교육원)

기관 · 단체

**마리아사제운동 월례미사와 체니콜로기도**

일시 : 4.29(월) 10:00-12:30  
장소 : 염주동 성당 062) 373-4799  
문의 : 체니콜로기도 봉사회

**첫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일시 : 5.4(토) 09:00-11:30  
장소 : 가톨릭평생교육원 성당  
내용 : 썰기도, 미사(고해성사, 전대사 은총)  
문의 : 파티마세계사도직 010-6490-8475

**포콜라레 월례모임에 초대합니다**

일시 : 5.5(주일) 15:00  
장소 : 지산 172-14, 광주 포콜라레  
문의 : 062) 222-2800

**바오로딸 북콘서트**

일시 : 5.8(수) 19:00  
장소 : 가톨릭평생교육원 내 바오로딸서원  
주제 : 주락권 신부의 내가 사랑한 책  
문의 : 062) 528-1004

**임진각 통일가원 미사**

일시 : 5.9(목) 09:00-16:00  
장소 :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문의 : 파티마세계사도직 010-6490-8475

**5월 천호성지첫목요일 성시간 및 특강**

일시 : 5.9(목) 10:00 성시간 11:00 가정미사  
특강 : 13:00 양재식 신부, 14:00 남종기 신부  
문의 : 063) 263-1004 참가비 무료

**천호성지 5월 주말 영성피정**

기간 : 5.11(토)-12(주일) / 지도 : 황의현 신부  
문의 : 063) 263-1004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뽕 다섯 물고기’ 후원 안내**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서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우리 교구 내 산하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 병원시설,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농협 : 605-01-353182  
광주은행 : 019-107-310370  
우체국 : 500066-01-013298  
국민은행 : 551-01-1449-309

후원회원을 위해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감사미사 봉헌
- ‘뽕 다섯 물고기’ 회보 발송(분기별)
- 후원금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생애주기별기부 ‘나눔의첫걸음’ 안내**

첫돌, 결혼, 생일, 취업, 축일, 승진, 개업, 퇴직, 회갑 등 의미 있는 날, 특별한 날의 기쁨을 난치병 환우와 미혼모자에게 나누주세요.  
소중한 나눔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문의 : 062) 510-2893

**꽃동네 수도자와 함께 하는 성소주일**

일시 : 5.12(주일)  
장소 : 음성꽃동네사랑의연수원 / 도시락지참  
문의 : 043) 879-0283 (전화신청)

**제13차 여성성령목상회**

일시 : 5.17(금)-19(주일)  
장소 : 루하피정센터(성령강림사도수녀회)  
문의 : 010-3758-3572 홈페이지 참조

**춘계성령대회**

일시 : 5.20(월) 09:00-17:00  
주제 : 자비와 회복  
강사 : 김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천주교사도직회)  
장소 : 염주동 성당 / 무료  
문의 : 성령봉사자회 062) 382-6002

**성모신심피정**

일시 : 4.29(월) 09:00-17:00  
장소 : 가톨릭평생교육원 성당(김밥무료제공)  
강의 : 옥현진 시몬 주교,  
허찬 베드로 신부(광주가톨릭대학교)

미사 : 15:30, 윤영남 시몬 신부(담당사제)  
문의 : 파티마세계사도직 010-6490-8475

**살레시오영성의집 1일피정**

일시 : 5.13(월) 09:30-16:30  
장소 : 살레시오 영성의집(매월동)  
문의 : 062) 373-8712, 010-3866-2248

**지리산피아골피정점 특별피정안내**

**김연준 신부와 함께하는 교리피정**  
기간 : 6.6(목) 16:00-9(주일) 13:00  
대상 : 누구나  
접수 : www.piagol-732.net 061) 782-5004

**임상사목교육(CPE) 가을학기**

기간 : 8.14(수)-12.11(수),  
8.17(토)-12.7(토) 9:30-17:30  
장소 : 천주익성요한병원 CPE센터  
문의 : 010-2671-8174

**일본성지순례**

출발 : 매월 1회, 4박 5일 / 64만 원  
지역 :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주관 : 가고시마 교구 / 지도 : 송진욱 신부  
문의 : 010-3645-902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내용 : (국내입양) 입양상담 및 미혼모 상담  
홈페이지 : www.holyfca.or.kr  
문의 : 02) 764-4741~3

**무료상담 및 무료부모교육생모집**

내용 : 모래놀이상담(개인·집단), 학습 및 진로상담  
대상 : 유아, 청소년, 성인, 관심있는 모든 분  
문의 : 살레시오수녀회 010-2187-6872

**수도회**

**예수고난회성소모임**

일시 : 매월 첫째주 토요일-주일  
장소 : 서울 성가브리엘포네티수도원  
주소 : 성북구 아리랑로6 나길 9-36  
문의 : 010-6804-4904

**예수고난회 성지순례**

일자 : 6.6(목) 07:20-6.8(토)  
출발 : 일곡동 명상의집 주차장  
순례비 : 1인 25만 원(1인일 사용)  
문의 : 서울명상의집 02) 990-1004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성소모임**

일시 : 5.5(주일) 10:00  
장소 : 서울 돈암동 본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출구  
문의 : 남승원 토마스 신부 010-9937-0901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자 피정**

기간 : 5.18(토)-19(주일) 1박2일  
장소 : 강원도 참재자마을 피정의집  
주제 : 수녀님들의 선교체험, 소소(昭昭)한 나눔  
대상 : 만 35세 미만 성소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피정비 : 1만 원  
문의 : 010-3015-1773

**성삼의말씀 수녀회-청년들을위한 생태피정**

일시 : 6.2(주일) 10:00-17:00(교통편 제공)  
장소 : 담양군 대전면 대치길 22-14, 본원  
대상 : 40세 미만 남녀 청년  
성소상담을 위한 방문과 전화, 개인피정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신청 및 문의 : 061) 382-2214, 010-4853-2114

**라틴어 그레고리오 성가 미사**

일시 : 5.11(토) 10:30  
장소 : 북동 성당  
집전 : 이영수 세례자요한 신부  
문의 : 062) 380-2210~5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 5.3(금) 16:00  
장소 : 가톨릭평생교육원 경당  
문의 : 062) 380-2843

\* 군 입대를 앞둔 예비군인과 부모님께서는  
주교님께서 안수를 해주십니다.

**신자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주보,  
“신앙과 삶” 코너를  
기획·게재 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내용 : 신앙체험 이야기  
성령·세례명·주소·전화번호·소속본당 명기  
분량 : A4 2/3장(11point), 원고지 6장 이내  
접수 : 이메일 hongbo@gjcaholic.or.kr  
우편 61905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천주교광주대교구 사무처 홍보 담당자 앞

\* 참여하신 분들 중 선정된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